

제 34 기 결 산 공 고

연 결 재 무 상 태 표

제 34기 : 2015년 12월 31일 현재

제 33기 : 2014년 12월 31일 현재

한세에스24홀딩스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단위 : 원)

과 목	제 34 (당)기		제 33 (전)기	
	금 액		금 액	
자 산				
I. 유동자산		787,491,224,488		583,161,949,215
1. 현금및현금성자산	160,720,462,603		73,115,052,747	
2. 단기금융자산	310,000,000		30,100,000,000	
3. 매출채권및기타채권	231,088,915,092		153,842,266,103	
4. 유동성매도가능금융자산	112,046,761,421		112,135,921,428	
5. 당기법인세자산	186,392,248		507,213,000	
6. 채고자산	249,427,911,426		187,690,674,189	
7. 기타유동자산	33,710,781,698		25,770,821,748	
II. 비유동자산		648,649,630,056		538,157,053,418
1. 장기금융자산	199,000,000		3,000,000	
2. 장기성기타채권	10,700,200,567		5,608,206,847	
3. 매도가능금융자산	274,025,802,836		203,078,264,003	
4. 관계기업투자	22,353,732		1,313,093,731	
5. 유형자산	225,650,129,888		216,802,884,816	
6. 투자부동산	23,951,443,488		11,927,605,728	
7. 무형자산	70,325,300,356		66,631,517,495	
8. 이연법인세자산	17,768,760,935		11,125,116,661	
9. 기타비유동자산	26,006,638,254		21,667,364,137	
자 산 총 계		1,436,140,854,544		1,121,319,002,633
부 채				
I. 유동부채		694,200,408,568		549,560,178,053
1. 매입채무및기타채무	146,401,184,628		118,126,616,109	
2. 단기차입금	446,338,600,075		350,921,313,358	
3. 파생금융부채	-		3,240,024	
4. 이연수익	27,192,730,765		25,351,354,364	
5. 기타금융부채	22,292,880		21,944,390	
6. 당기법인세부채	26,963,072,486		17,368,944,271	
7. 반품충당부채	5,829,889,628		5,262,131,890	
8. 기타유동부채	41,452,638,106		32,504,633,647	
II. 비유동부채		192,694,888,631		125,494,897,578
1. 장기성기타채무	7,600,841,454		5,450,184,746	
2. 장기차입금	132,766,337,875		71,281,060,710	
3. 순확정급여부채	47,621,491,664		44,076,304,121	
4. 이연법인세부채	4,706,217,638		4,687,348,001	
부 채 총 계		886,895,297,199		675,055,075,631
자 본				
I.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263,533,449,837		215,433,606,017
1. 자본금	20,000,000,000		20,000,000,000	
2. 기타불입자본	16,838,841,920		15,724,894,930	
3. 기타자본구성요소	(140,030,424)		12,633,372	
4. 이익잉여금	226,834,638,341		179,696,077,715	
II. 비지배지분		285,712,107,508		230,830,320,985
자 본 총 계		549,245,557,345		446,263,927,002
부 채 및 자 본 총 계		1,436,140,854,544		1,121,319,002,633

위와 같이 공고함.

2016년 03월 30일
한 세 에 스 24 홀 딩 스 주 식 회 사
대표이사 김 동 녕 • 김 기 호

감사의견: 위 연결재무상태표를 포함한 제 34기 연결재무제표는 중요성의 관점에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삼일회계법인 대표이사 안 경 태